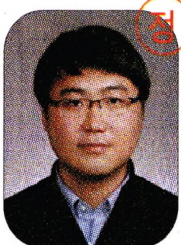


201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전 본격 돌입

<총학> 똑똑똑 대 T.O.P, <총여> 여보세요 대 우먼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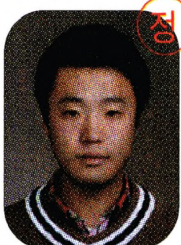
<총학생회>

똑똑똑



현윤희(원예 4)

T.O.P



오경범(경제 4)

<총여학생회>

여보세요



양혜경(가정관리 3)

우먼센스



고민연(무역 3)

<총대의원회>

육하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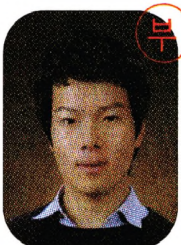
김민석(정치외교 4)

<동아리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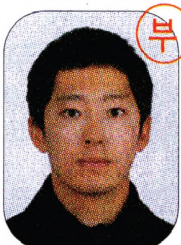
YO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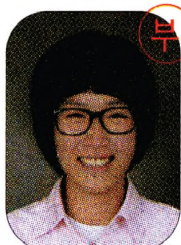
홍영기(경영 2)



박병준(경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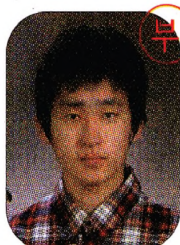
고경모(정치외교 2)



박근양(회계 3)



최정운(사회 3)



오승준(회계 3)



정우석(철학 3)

지난 1일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투표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권종 정치외교 4) 주관으로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치러진다.

2011학년도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학생회 후보로 △'똑똑똑' 정-현윤희(원예생명과학 4) 부-박병준(경영 4) △'T.O.P' 정-오경범(경제 4) 부-고경모(정치외교 2), 총여학생회에

△'여보세요' 정-양혜경(가정관리 3) 부-박근양(회계 3) △'우먼센스' 정-고민연(무역 3) 부-최정운(사회 3), 대의원회 후보로 △'육하원칙' 정-김민석(정치외교 4) 부-오승준(회계 3), 동아리연합회에 △'YOU&I' 홍영기(경영 2), 정우석(철학 3)이 출마한다.

정책토론회는 법정부학 중강당에서 지난 2일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3일 오후 2시 총대의원회, 4일 오후

1시 총여학생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각각 10일과 11일 한 번 더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각각 9일과 11일 학생회관 2층 한라홀 앞에서 이뤄지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는 16일 주간(오전9시~오후6시)과 야간(오후6시~오후10시50분)으로 나뉘어 각 단과대학에서 투표가 치러진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3일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4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유세=8일 △총대의원회 선거=9일 △동아리연합회 선거=11일 △총학생회 정책토론회=10일 △총여학생회 선거유세=11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유세=15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16일

강보배 기자

산학협력단, 바이오가스 플랜트 첫 가동

연간 65만Kw 전력과 고품질 액비 생산 기대

기술지주회사로 확대

산학협력단(단장 이호원·생명화학공학과 교수)이 참여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완공돼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양돈 분뇨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와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는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란 일명 '메탄발효'라고 불리는 혐기성소화처리 과정 중에 생성되는 메탄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공업체인 유니스하이테크(주)와 시행업체인 영농조합법인 영주그린과 지난해 6월 플랜트 건설 및 전력판매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시설 안정성 평가, 액비성능 평가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맡는다.

허향진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주 축산바이오 발전소의 준공은 산, 학, 민, 관의 협력체계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어려운 과제인 축산폐수 처리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미래산업적 전망과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이며,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이 분명한 만큼 제주인의 희망의 공간으로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서 열린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준공식 행사에서 허향진 총장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의 연구를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성공적인 실천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아가려는 주민적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집수조(200t)와 발효조(2400t), 액비 저장조(1000t) 등을 갖췄다. 하루 50t의 양돈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18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연간 65만Kw 전력 생산으로 월평균 가구 당 전력소비량 300Kw 적용 시 180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지난 8월23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3만 20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등 성공적인 시험가동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태우고 난

후 남은 양돈 분뇨의 발효액은 질소 성분이 많고, 토양과 잘 결합할 뿐 아니라 냄새가 없는 등 품질이 좋아 자원순환형 농업에 비로 쓰이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메탄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고, 냄새 없는 발효액을 자원순환형 농업에 활용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기반 조성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앞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보급을 확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용 활성화와 함께 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2014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의 80%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제조공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입학사정관제 도입'...2012학년도 입학전형 확정

해녀 자녀도 사회적배려대상

제주대가 지난달 28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일부를 변경·시행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제주대가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수시모집에서 글로벌미래교사 전형(사범대 22명, 교대 30명)과 학교장추천자 전형(48명 학과, 101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이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 서류평가, 심층면접 결과, 과목 반영해 선발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사범대학 정시모집 나군에서 시행되던 면접시험을 폐지함으로써

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체육학부는 골프, 볼링, 검도 분야의 특기자를 신설해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도 정시모집에서처럼 미등록자 발생할 경우 추가등록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시모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경우 제주해녀의 자녀도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색을 반영한다.

법전원·의전원 접수마감 결과 발표

제주대는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접수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법전원은 40명 모집에 187명이

지원해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의전원은 25명 모집에 342명이 지원해 평균 1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 일정은 오는 5일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 후 27일에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집에 제주대 출신 지원자는 법전원 21명, 의전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양길현 신입 교수회장 ▶4면 총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 후보자 ▶5면 인재상 빙소진 학생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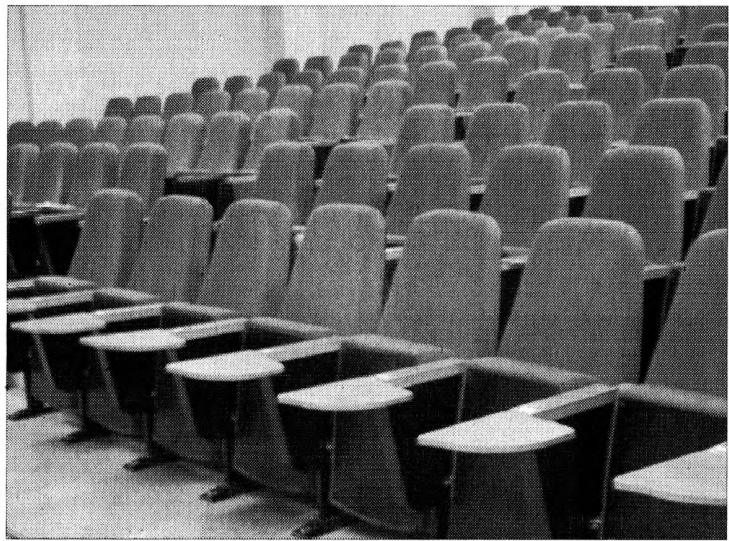
OPEN YOUR DREAM!

꿈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우리 이곳에서 서로의 꿈을 희망을 덧붙이고 열정을 덧붙이자
다양한 생각, 같은 열정을 가진 이들이 모여 꿈을 더 크게 키워가는 곳~
그때, 우리 영상성에서 만나자!

[영상성 열정문양인 10기 여러분들입니다.]

대단위 강의실 일체형 책걸상 학생들이 불편

너무 좁은데다 필기도 힘들어... 예산문제로 당장 교체는 불가



대강의실 책상이 좁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듣는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강의실의 책상이 너무 좁아 학생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학내 대강의실은 교양강의동과 각 단과대학별로 세미나실이나 중강당이 마련돼 있다. 단과대학별로 세미나실이나 중강당은 일부 강의

나 특강만 진행한다. 그러나 교양 강의동 대강의실은 많은 학생들이 듣는 교양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강의실에서 수업이 많고 시험도 진행된다. 이런 대강의실은 강당 형식으로 의자가 있고 의자 옆에서 간 이책상이 나오는 구조로 돼 있다. 의자에서 책상을 꺼내야 하기 때문

에 책상이 작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필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책을 펴는 데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연(사회 1)씨는 “원순잡이에서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필기를 할 때에는 몸을 틀어서 쓸 수 밖에 없다”며 “책상이 넓거나 왼쪽에도 책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대강의실에 일부책상들을 원순잡이학생들도 책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왼쪽에도 간이책상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교양강의동 관계자는 “교양강의동 대강의실은 강의실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강당 형식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며 “개선을 하려면 대강의실 의자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나 시간적인 문제로 개선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강의실에서 작은 책상 때문에 시험을 볼 때 시험규격 용지가 책상 밖을 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효림(수학 1)씨는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는 책상이 좁아 큰 책에는 필기를 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며 “시험볼 때에는 시험규격용지가 책상보다 커서 시험을 보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대강의실에서 치르는 시험의 불편함에 대해 학사관리과는 “대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의 경우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빈 강의실이 많지 않아서 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빌린다고 해도 강의실 별로 학생을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강의실에서 시험을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강의실 의자의 불편함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개선할 때 책상을 넓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의학전문대학원 “의대 복귀 않는다”

의전원 교수 투표 83% ‘유지’ 선택

현실적 고려 반영

의학전문대학원(원장 홍성철 교수, 이하 의전원)이 의과대학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제주대는 예과 2년+본과 4년의 기존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부 4년+의전원 4년의 의전원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7월1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의학 교육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 발표하자 의전원 중 상당수가 의과대학으로 복귀했다.

이런 움직임에 우리대학에서도 의과대학 복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 달 18일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갖고 복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

다. 투표에는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은 교수를 제외한 83명이 참여했고, 그 중 과반수가 ‘현 체제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제주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전원 유지 방침을 교과부로 전달했다.

이렇듯 제주대가 의전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전원 유지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영향을 줬다. 의전원을 유지한 대학에게는 3년간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체제 정착비가 지원된다.

또 1~2학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다음년도에 이월해 증원 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립대 교수 증원 시 교수들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

다. 홍성철 의전원장은 “제주대는 신생의대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게 되면 의전원 지역할당제를 통해 뽑았던 제주지역인재들을 뽑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한몫했다.

우수 학생 유치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원장은 “이번 학제 선택으로 인해 전국 41개 의대·의전원 중 완전 의전원을 선택한 대학은 5개로 의전원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장학금 확충을 통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원장은 “학·석사 통합 과정과 MDPHD복합과정(의과학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등과 같이 의전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보배 기자

세계평화 하계대학교 모집

내달 16일까지... 등록금 164만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소장 고창훈 교수)와 사단법인 세계평화회 및 10개 자매 외국대학, 국제기관과 합동으로 2011년 제5차 세계환경과 평화 하계대학(The 5th World Environment and Peace Summer School)을 개설 운영한다.

글로벌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하계대학에는 미국, 호주, 일본 등 76명 이상의 교수진과 국내 교수 및 전문가가 5개 트랙 13개 강좌, 학점취득과정과 2개 연수 과정이 개설된다.

이번 하계대학은 내년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제11회 평화의 섬 볼텍 포럼(Peace Island Bultek Forum)’의 발표 및 토론 참가, ‘국제평화법정(International Peace Tribunal)’ 참여, ‘세계환경-섬-평화 프레영 화제 World

Environment-Islands-Peace Pre Film Festival’ 워크숍 참여, 세계지질공원투어, 세계자연유산투어, 평화문화투어, 해양문화투어 등 Friday Island Tour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환경과 평화하계대학은 2010년 10월 UN 총회의 평화문화의 결의안에도 포함되고, 2011년 5월 UN의 문명간 연합 기구에 등재될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연구교육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지난 1일부터 (www.peaceisland.asia)를 통해 12월 16일까지 이뤄진다.

등록금은 164만원(두 코스 1,400,000원 + 국제컨퍼런스참가비 120,000원 + 문화체험참가비 120,000원), 제주대 학생인 경우 두 코스 수강료 50% 할인 및 조기등록시 10만원 할인된다.



‘양심 불량 주차’

본관 옆 대학원동 건물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불법주차 차량 대부분이 표지된 차량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대 뉴스 클리핑

일 메이지대와 상호 교류협정 체결

제주대와 일본 메이지대(학장 사토 고키)는 지난달 11일 복수학위에 관한 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교류협정으로 두 대학은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상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양 대학에서의 학위 수여를 가능토록 했다.

또 두 대학은 복수학위학생

의 파견·수용 인원에 대해 매년 협의를 거쳐 복수학위학생을 매년 대등하게 수용한다.

복수학위학생은 수용대학에서 2년, 파견대학에서 2년 이상, 모두 4년 이상 재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대학은 해당 복수학위학생의 학적 취득상황이나 수학 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년을 초과해 수용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원, 에세이 콘테스트 개최

영어 강나경(영문 3)·독일어 김은희(독일 4) 최우수상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달 11일 제 3회 Essay Contest 시상식을 열었다.

9월 30일 열린 Essay Contest는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하는 대회이다. 이날 Contest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지만 일

미만인 이유로 영어, 독일어 등 2개 언어에 대해 실시했다. 영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강나경(영문 3), 우수상에 이윤아(간호 1), 독일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은희(독일 3), 우수상에 김현경(독일 4)학생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각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각 40만원, 우수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제주대 스마트그리드산업 선도한다

롯데정보통신·포스코ICT·대경엔지니어링과 협약 체결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개소식이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대가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센터장 박경린)가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박경린 센터장은 “제주도의 성장 동력 산업육성이 시급한 때에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좋은 기회”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

개소식에 이어 제주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주)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과 그린IT분야(지능형빌딩시스템 포함) 공동연구 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ESCO(Energy Service Company), IBS(지능형빌딩시스템) 등의 그린 IT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산학협력을 통해 제주대는 스마트그리드(Smart Transportation, Smart Place, Smart Renewable) 전 분야에서의 역량 확대, ESCO 시범사업 실증 사례 연구 등 그린IT를 통한 에너지·환경 분야 개선에 노력하고, 이외에도 u-Campus, 정보화 사업 등에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제주대 학생의 그린IT분야 실무능력 배양 및 전문인재 양성, 우수인력의 인턴 및 신입사원 채용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달 26일에는 (주)포스코ICT 스마트그린개발단(단장 최창호), (주)대경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대환)과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 공동 개발 및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 및 과제, 사업 모델, 관련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해 나간다.

특히 포스코 ICT는 제주대 학생들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현장 실습 및 인턴 활성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대경엔지니어링은 제주대에서 수행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추사의 길’ 만들어 진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 코스개발 완료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수)가 2010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인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 중 ‘추사의 길’ 3개 코스의 기획을 완료했다.

‘추사의 길’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생활을 했던 대정과 안덕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체험을 통해 그의 지력과 흔적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1코스는 추사유배지를 시작으로 대정향교를 순환하는 코스로 유배생활을 직접 느낄 수 있다. 2코스는 추사유배지에서 출발해 오설록까지 이어지는 코스이다. 3코스는 대정향교에서 산방산을 거쳐 안덕계곡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제주의 해안을 보며 추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추사의 길이 통과하는 마을에는 김정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발생공학 국제심포지엄 우수상 수상

줄기세포연구센터 박효영 선임연구원과 노은지 연구원이 지난달 29일 ‘제10회 발생공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논문발표 심사 결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동물번식학회와 한국수정란이식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 선임연구원은 “바이러스 운반체를 사용하지 않는 역분화줄기세포 확립”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노 연구원은 “체외생산된 소 수정란을 이용한 효율적인 배아줄기세포 확립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노은지

박효영

이번 연구는 박세필(생명공학부)교수와 미래생명공학연구소장 김은영 박사의 공동지도로 수행됐다.

한편, 노은지 연구원은 지난 6월 ‘2010년 한국동물번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똑같은 연구로 논문발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 됐다.

이선주 교수, 한국융합학회 부회장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이선주(화학과 교수) 센터장이 학문 분야의 융합 연구를 위해 창립된 (사)한국융합학회 초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달 22일 창립된 이 학회는 과학, 사회, 경제 3요소가 서로 융합돼 인류의 삶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융합 분야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 학문과 기업 사이에 융합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편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는 (사)한국융합학회와 공동 협력 연구를 맺어 기술과 학문, 예술의 융합에 힘쓰게 된다. 이를 통해 특정한 분야의 지식인만 이용하는 통합적 소양을 갖춘 지식 융합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주 교수

“여학생 생활관 앞 애정행각 심하다”

일부 학생 행위에 거주 학생들만 피해

여학생 생활관 입구에 일부 남학생들이 자주 드나들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베란다에 널어놓은 속옷과 방 안 모습이 한 눈에 보여 사생활을 침범해 문제다. 또 그 곳에서 담배를 피거나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경화(관광개발 1)씨는 “베란다에는 속옷 빨래도 널고 가끔 환기를 시키려 문을 열어 두어야 하는데 밖에서 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있으면 불편하다”며 “더욱이 밤에는 벤치에서 스킨십을 하는 커플들도 있어 보기도 안 좋다”고 말했다.

남학생들이 늦은 시간 여학생 생활관을 드나드는 것은 생활관에 사는 여자 친구를 만나거나 데려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학생과 벤치에 앉아 길게 이야기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남학생들 스스로도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생명대학의 한 남학생은 “여학생 생활관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행위가 여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일은 같은 남학생 입장에서라도 보기 안 좋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들도 같은 생활관 학생들을 배려해 남자친구가 여학생 생활관을 드나드는 것을 막거나 돌려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선이(언론홍보학과 1)씨는 “여자 친구가 걱정돼 데려다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학생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의 행동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비실도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여학생 기숙사 앞에 있는 남학생한테는 주의를 주고 있지만 특별히 남학생들에 출입을 막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학생 생활관의 한 경비원도 “남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여학생 생활관 앞, 널어놓은 빨래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이 대담한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다”며 “여학생들도 다른 여학생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남자

친구의 출입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지 기자

제주대 국정감사 이모저모

10개 거점대학 중 연구실적 꼴찌

김유정 의원 “무늬 뿐인 차등성과급이 원인”

제주대 국정감사가 지난달 15일 전남대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입전형료 공공요금 납부와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 연구실적 최하위의 문제가 지적됐다.

△대입전형료 일부 공공요금 납부

제주대가 2006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지난 5년간 대입입시 전형료 수입 중 일부를 학교 공공요금을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국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대가 2006학년도 2700만원, 2007학년도 3600만원, 2008학년도 5300만원, 2009학년도 3200만원, 2010학년도 3400만원을 공공요금을 내는데 사용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대학에 보낸 ‘대입전형료 적정화방안’에 따르면 ‘수험생의 대입전형료는 전형과정에서 쓰이는 비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라고 돼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10개 거점대학 중 연구실적 꼴찌

제주대가 10개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 연구실적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실적 저조는 무늬뿐인 차등성과급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제주대가 10개 거점대학 중에서 연구실적이 꼴찌였고 전임교원의 무늬 뿐인 차등성과급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거점국립대학별 논문·저술 게재 실적 현황(2008년도)’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전임교원 1인당 논문·저술 실적이 0.82로 10개 거점대학 평균 1.2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10명 중 4명은 1년에 한편의 논문도 안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1년에

논문과 저술 실적이 없는 전임교원 비율도 제주대가 35%로 가장 많고, 10개 거점대학 평균인 21.1%에 비해서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제주대학교가 제출한 ‘2008-2009년 전임교원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제주대 전임교원의 성과급은 무늬만 차등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대측은 100%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으나 2008년도 최상인 A등급과 최하인 E등급의 성과급 차이는 83만원, 2009년도에는 116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년 동안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는 전임교원들도 있지만 차등성과급 격차가 최고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무늬뿐”이라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항진 총장은 “제도를 개선해 승진과 재임용시 연구성적을 확대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기자수첩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커피자판기에서 아무렇게도 뽑아대는 종이컵. 대학 구성원들은 단 몇 분만에 종이컵 하나를 훌쩍 써버리고 쉽게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나 몇 분만에 훌쩍 쓰는 나무는 없다. 종이컵은 숲에서 몇 십년간 자란 나무를 베어 만든 것이다.

소비조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내 커피자판기와 매점에서 약 120만개의 종이컵이 판매됐다고 한다. 바빠 말하면 대학 구성원들이 그만큼 나무를 뽑아 써 버린 것이다.

대학 본부의 모든 부서를 방문해 종이컵을 아끼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일부 부서는 전 직원이 개인컵을 가지고 있으며 손님이 왔을 때에도 대부분 찻잔을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부서가 난처한 표정이었다. 일부 부서는 ‘종이컵을 아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어 보였다.

한 부서의 관계자는 책상 위에

커피를 마셨던 종이컵 3개를 겹쳐 놓고는 “지금도 종이컵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부서의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자 대부분 책상에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또 다른 부서의 관계자는 “머그컵을 비치해 뒀지만 습관적으로 종이컵을 쓰게 되는 것 같다”며 “종이컵을 아끼자는 캠페인은 특별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면 종이컵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종이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부서마다 종이컵을 사용하는 양도 달랐다. 종이컵을 많이 쓰는 부서는 1~2주에 한번 꼴로 종이컵 재활용함을 비우지만 적게 쓰는 부서는 1년이 넘도록 재활용함이 차지 않았다.

물론 종이컵 낭비가 대학 본부에 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단과대 행정실이나 센터 등에서도 아무렇게도 쓰레기통에 종이컵이 낭비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기르는 곳이다. 이러한 대학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지 못할망정 자원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큰 회의에서 유리컵을 사용하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작은 회의나 소수의 손님이 왔을 때에는 유리컵으로 음료를 준비해야 한다. 직원들은 개인컵을 준비해 웬만하면 종이컵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 연인을 사랑하듯 환경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종이컵을 쓰지 못할 것이다. 오일부터 환경과 연애를 해보자.



고용희 기자

전도 문학백일장

27개교 483명 참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과장 손오규)는 지난달 10일 중학교 9개교 76명, 고등학교 18개교 362명 등 총 27개교 43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한글날 기념 제46회 전도 중·고등학교 문학백일장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등부 최우수 - 고정민(문문, 남녕고1년) △중등부 최우수 위에는(문문, 제주서중 2년), 김예린(산문, 제주동여중 3년)

△고등부 우수 - 김민수(문문, 오현고2년), 현지석(문문, 제주제일고 2년), 김지현(산문, 신성여고 1년), 이다미(산문, 남녕고 2년) △중등부 우수 - 임성경(문문, 효돈중3년), 이선주(문문, 제주여중 2년), 김재훈(산문, 제주제일중 1년), 이다경(산문, 함덕중 3년)

△고등부 지도교사상 - 송남영씨(제주제일고) △중등부 지도교사상 - 고희선씨(제주서중)



“공부하다가 깜짝” 소음공해 짜증

○...노래방으로 변한 캠퍼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난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지난달 29일 한라터에 노랫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져 소음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오밤중에 한라터가 노래방으로 변해 밤늦게 남아 공부하던 학생들은 화들짝 놀랐다고.

알고 보니 이날 한라터에서 제주MBC ‘열창 다함께 차차차’ 녹화가 있었던 것.

다함께 열창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서 스피커를 뺄까봐 놀랐다고. 스피커를 뺄까봐 놀랐다고. 스피커를 뺄까봐 놀랐다고.

○...교양동 앞은 귀신의 집? 교양동에서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들은 꼭 귀신의 집을 들어야 한다고.

야간 수업이 끝나고 문 앞을 나섰는데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고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주위를 돌아보니 학생들이 밤이 어두워 앞에 있던 돌기둥에 다리를 부딪친 것. 여학생들은 귀신이 안다리걸기라도 한 줄 알고 화들짝.

전력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수업이 있는 날에는 가로등을 켜 줘야 할 듯.

○...유세 소음공해 규제 필요 수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 강의실에서 난데없는 무령한 목소리가... 알고 보니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본부 강요실에서 수업 전 홍보활동을 벌이던 것.

강의실마다 해당 수업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지만 옆 강의실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소리를 치는 것은 민폐가 아닌지.

학생자치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임을 모르시나요?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과도하게 큰 목소리를 줄이고 옆 강의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응 모 분 야: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8:00까지
4. 접 수 장 소: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 표: 제주대신문 847호(2011년 1월 5일 발행 예정)
6. 시 상 내 역: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2. 응 모 분 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3. 시 상: 학부생/대학원생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당선작 각 1편: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각 2편: 총장상 및 30만원
4. 심 사 및 시 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 접 수 마 감: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6. 당 선 작 발 표: 2011년 신년호



제주대박

공짜 샌드 파전, 계란찜, 갈비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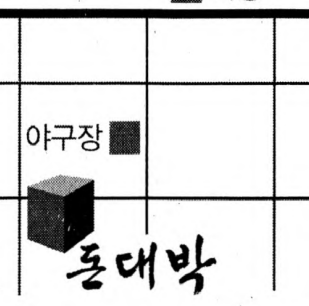
고기만 드셔도 생맥주 공짜!

삼겹살 가브리살 향정살

돌판갈비찜 돌판닭찜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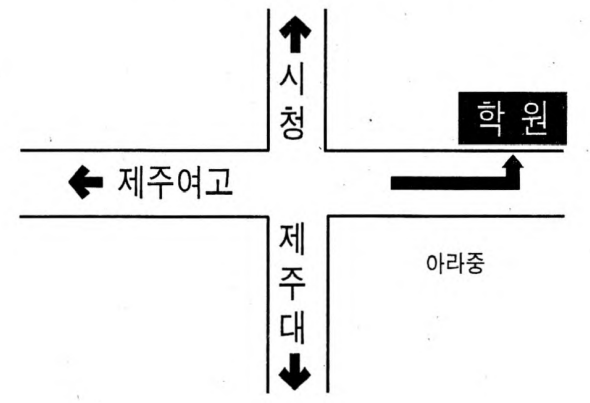
제주시 이도2동 1769-1 T. 759-2382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인터뷰 / 양길현 신임 제4대 교수회장

“교수회 위상 높이고 역할 강화에 최선”

구성원간 협력관계 확대... 대학현안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지난 1일 제4대 교수회장 임기를 시작한 양길현(윤리교육과) 교수를 사법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신임 양길현 교수회장은 “교수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학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수회 위상 정립, 교수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온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교수회장을 맡은 소감.

“책임에 따른 무게로 마음이 무겁다. 교수회가 찾아보면 할 일이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열악한 듯 하여 더욱 걱정이 크다. 그러나 한걸음씩 내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노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당연히 교수회 임원 구성 등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홈페이지 활성화에 관한 인적·재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교수사회의 공론장 마련이야말로 교수회 운영의 시작이라고 여겨진다.”

교수들은 각자 다양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분야만을 오랫동안 연구하기에 다른 분야와 외부와 소통할 일이 적은 편이다. 교수회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교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캠퍼스 밖으로 나아가야 지역사회가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소견발표회에서 ‘교수회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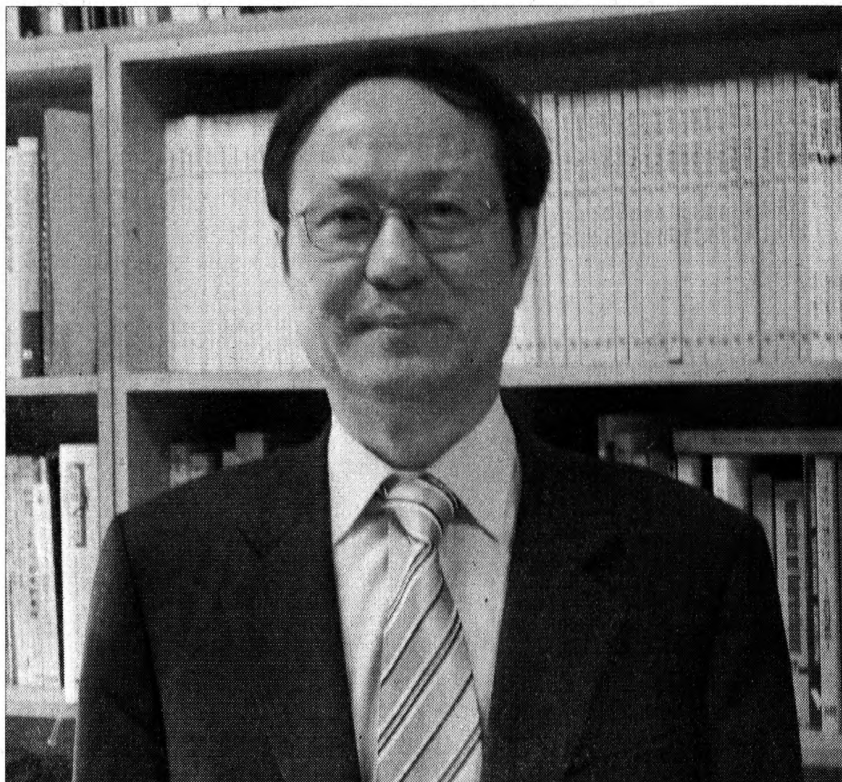
에서의 일선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 의미는.

“교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 보고가 절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교수회의 사업 활동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수정과 변경 및 재정운용상의 투명성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2030’(가칭)이라는 장기

미래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학본부에서도 제주대 장기미래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 미래비전이 대학본부



양길현 신임 교수회장은 “교수회가 대학구성원간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만큼 보다 이해심 있는 마음으로 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점물이 아니라 교수회도 그 나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수정보완과 대안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수회가 별도의 장기미래발전계획을 기획하기보다는 대학본부와 함께 거버넌스(협

“교수회가 중점을 뒀다 할 할 에·결산 등 대학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은 물론이고 대학본부가 소홀히 한다고 생각되는 미래비전. 찾기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중의를 모으는 데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의 사업 구상과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교수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교수들의 역할을 세일즈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자 한다.”

-직전 교수회장에서 교수회 차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추진이 안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교수회 차원의 윤리강령 제정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명문화하여 규정에 없는 방향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좋은 지는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교수 본연의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지 않고 있는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교수 본연의 의무에 집착하기보다는, 교수 본연의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마련과 기반구축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윤리강령 제정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주대에는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총동문회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교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교수회의 역할이 교수회 혼자만은 안 되고 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있는 대학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교수회에 대해 보다 이해심 있는 마음으로 대해 주길 바란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주요 약력

△54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83) △서강대 정치학석사(87) △서울대 정치학박사(9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99) △평화연구소 소장(07)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정치학과 방문교수(08)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09) △동북아시아학회 제주특위 간사, 세계평화학의심법도민심현학회 운영위원,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소장,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현재).

부속시설 탐방③ - WISE 프로그램제주지역센터

“퀴리부인 되는 길 활짝 열어요”

여성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다채



WISE 센터에서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여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같은 이공계분야를 어려워한다. 오죽하면 공과계열에 여학생 수가 적어서 공과계열 여학생들을 공대녀라하며 때때로 차별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공계 분야에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WISE프로그램이다.

WISE는 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의 약자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 진출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러한 WISE사업이 200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에 자연과학대학 2호관 내에 WISE제주지역센터(소장 강정숙)가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WISE제주지역센터에서는 이공계열 여학생들에게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교류에 도움을 준다. 또 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초청강연과 멘토링 워크숍, 멘토와의 만남 등의 다양한 시간을 갖는다. 오는 11월 11일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험실, 과학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이공계 학과 여대생이 중학교를 찾아가 여중생들과 과학실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교실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와 대학실험실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이공계 분야의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여중생들에게는 관련 실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여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구캠프와 여고생연구발표대회 등이 운영된다. 연구캠프는 이공계학과 교수가 멘토로 참여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20시간 이상 미니 실험을 연구한다. 이 연구캠프를 토대로 하여 연구발표대회를 갖는다. 연구발표대회에서 수상을 한 수상자는 ‘전국여고생 연구발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대생들에게는 진로멘토링교과목, 과학실험 멘토활동단 등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진로멘토링교과목은 이공계 학과 여대생들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미래설계’ 과목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실험 멘토활동단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실험실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과학 실험 교육을 한다.

이렇게 WISE센터는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과학과 이공계열 여학생들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여대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오 연구원은 “이공계열에 재능이 있어도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선뜻 다가오지 못한다”며 “학생들이 이공계열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열악한 교수회 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위한 교수역량 결집

본부와 장기발전 거버넌스 구축

항시 눈과 귀 열어둘 것

치 또는 공치)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교수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학장 선임 문제, 학과 및 연구소의 자율성 강화 등과 같이 단과대학과 학부·학과의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도 시간을 많이 들이도록 하겠다.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대만	홍콩	호주
상해/황산 5일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4일	시드니 6일
북경/만리장성 4일	필리핀 5일	지중해 8일	미주
상해/항주/소주 4일	마닐라	터키/그리스	미동부
상해/장가계 5일	인도 8일	캄보디아 5일	미서부 8일
	인도/젠지스	앙코르왓	케나다
	베트남 5일	태국 5일	유럽
	베트남북부/하롱베이	방콕/파타야	서유럽
			동유럽 8일
			북유럽

하나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정규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H.P: 010-4693-2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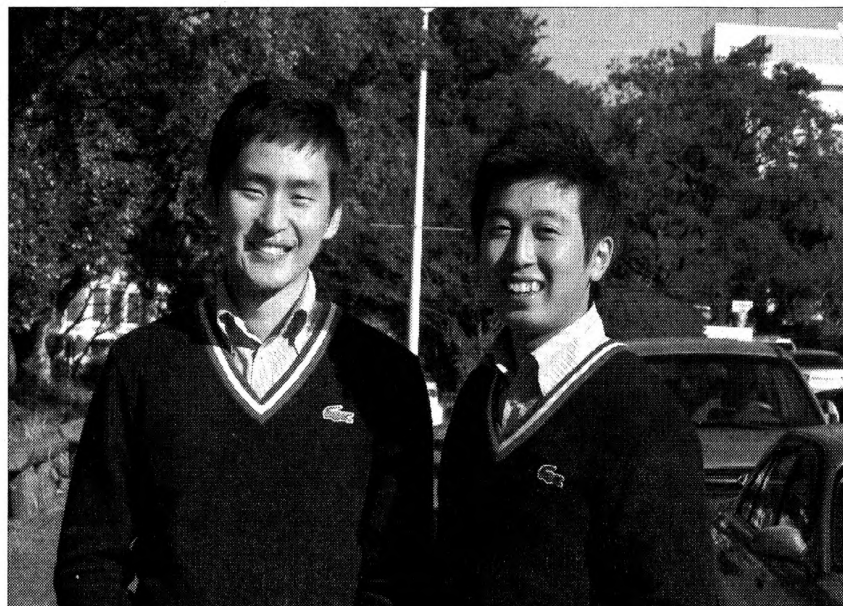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

〈총대의원회 육하원칙〉 정- 김민석(정치외교 4), 부- 오승준(회계 3)

“감사는 원칙대로... 회칙 지켜 갈등 방지”

전자투표제 도입 · 과대표 독서실 마련 등 주요 공약

-출마동기는
“2학년 때부터 3년 내내 과대표를 맡았다. 과대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심부름꾼이자 행사를 전파하는 일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 과대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반아래인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총대의원회가 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
또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학생자치기구 회장이 되면 돈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을 고치고 싶어서 출마했다. ‘육하원칙’이라는 이름도 원칙에 따라 분명히 일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회칙 등을 철저히 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임후보자가 생각하는 총대의원회의 역할은
“총대의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사’다. 총대의원회를 사람 몸에 비유하면 ‘척추’라고 할 수 있다. 척추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의 균형을 잡는 기둥이자 뼈대이다. 총대의원회도 학생자치기구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자치기구를 무조건 비판한다기보다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총대의원회의 아쉬운 점
“현 총대의원회의 정책이 아직 실시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행이 안된 것도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총대의원회’ 체제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단과대와 총대의원회의 원활한 연락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당선된다면 단과대마다 대의원회 사무실을 갖추고 홍보에 힘쓰겠다.”
-주요공약은
“우선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투표하는 기존의 방식은 선거 용지가 섞이는 등 문제가 많다.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 보다 공정성 있는 선거가 될 것이며 개표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고도 덜어줄 것이다. 사전조사 결과 예산도 크게 필요하지 않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또다른 공약은 학생회관에 ‘과대표 독서실’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회관 내에 책상과 사물함을 놓고 간식 같은 것도 마련할 생각이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는 과 행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공간은 과대표들 뿐만 아니라 동아리인들도 이용할



제 23대 총대의원회 선거에 출마한 ‘육하원칙’ 정후보자 김민석(정외 4, 우)씨와 부후보자 오승준(회계 3, 좌)씨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과대표 독서실에 대해 현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연합회 후보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사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기존의 감사평가가 작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우선 단과대 대의원의장이 생겼다. 감사위원회의 12개 단과대 의장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장을 뽑은 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단과대를 감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12명의 의장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고 예산발표 때에도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해 감사 모습을 지켜본다든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가 저조한 정책설명회 활성화 방안은
“지금까지 정책설명회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가해왔다. 당선된다면 선거기간 내에 학생회관 앞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홍보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학생 선거 문화는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 학생들이 인맥보다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 우선 후보자와 학생들 서로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이 우리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선거와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약간의 인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인맥 선

거가 아닌 올바른 정책 위주의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 총대에서 총대의원회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은
“대의원회 예산이 부족해 단과대 대의원회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아직 그 자리가 잘 잡혀있지 않다. 현 총대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거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 뿐이다. 아직은 학생들이 단과대 대의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이는 홍보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역할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간이영수증이 여전히 문제인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간이영수증 사용은 불가피하다. 간이영수증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벌점을 강화하고 의심이 가는 간이영수증은 직접 영수증 방문해 확인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
“총대의원회와 과대표들만의 기구가 아닌 일반 아래인을 위한 기구로 나아가는데 힘쓰겠다. 홍보와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잘 해나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은 권리와 의무라는 의식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정승우 기자

〈동아리연합회 YOU&I〉 정- 홍영기(경영 2), 부- 정우석(철학 3)

“취업난 여파 동아리, 뽕뽕뽕쳐 살린다”

동아리체육대회 부활 · 새내기 MT 확대 등 주요 공약

-출마동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민만으로는 현안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쳐 해결해보고 싶었다.”
-당선이 된다면 어떤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고 싶은가
“YOU&I라는 슬로건과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대학의 동아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위나 아래에서 동아리를 이끌거나 받치기보다는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더 가까운 동아리연합회가 되겠다.”
또 중앙동아리부터 가인준동아리나 단과대학 동아리까지 모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성실하고, 열려있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겠다.”



제 27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출마한 ‘YOU&I’ 정후보자 홍영기(경영 2, 좌)씨와 부후보자 정우석(철학 3, 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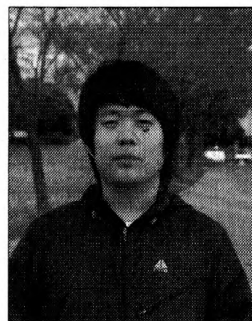
-현 동아리연합회에 아쉬운 점
“현재 하늘높이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의 내부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좋은 취지와 아이디어를 통해 훌륭하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동아리연합회가 엄연한 학생자치기구인데 다른 자치기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동아리연합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기구들과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치기구와 만남을 자주 갖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아리 내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먼저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동아리연합회 체육대회를 다시 진행할 것이다. 단순히 체육대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동놀이 축제와 연계해 동아리인들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열겠다.”
또 기존에 이뤄지던 새내기MT를 확대해 동아리인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 MT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새내기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리인들이 서로 어울리고 교류해 친목을 다지게 하겠다.”
이외에도 학생회관에 익명 건의함을 설치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외적 활동과 홍보 강화
“제주대 동아리연합회라고 하면 제주지

역의 동아리 문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연합회의 소식을 외부로 알리고, 대외적 활동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아리들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잡지를 매달 발행하도록 하겠다. 매달 개성 넘치는 동아리와 동아리들의 행사를 소개해주는 잡지를 만들어 학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보급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잡지가 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와 동아리 행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인준동아리와 단과대학 동아리들을 위한 공약
“현재 몸담고 있는 동아리가 블랙다이아몬드는 가인준동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준동아리와 단과대학 동아리들의 불편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동아리연합회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 중앙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행사에 있어서도 중앙동아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모든 동아리들이 어울릴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협조체제의 기본 방향은 동아리들만의 개성이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이지 각 동아리 활동에 개입하거나 흡수하는 방식은 아니다.”
-동아리 학생 모집 방안
“대학가의 분위기가 개인의 스펙, 성적 관리, 취업준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동아리 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해 이뤄진 동아리 소개 리플릿을 내용적

으로나 양적으로 강화하겠다. 또 모집기간에만 설치했던 안내 데스크를 상시로 설치해 동아리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타공약에 대해
“동아리인들이 가지는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다. 갑작스럽게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에 우산을 챙기지 못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 우산을 배치해 놓도록 하겠다.”
또 동아리 활동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거나 오랫동안 머물 때가 많다. 그러다보면 간단하게 세수나 양치 등을 하게 된다.
이럴 때 학생들이 편히 씻을 수 있도록 물비누, 가글, 핸드타월 등 다양한 비품들을 비치하도록 하겠다. 물품들이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유지를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우리 부모님은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 또 여전히 같은 동아리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듯 동아리라는 곳은 대학생활의 추억과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 주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동아리연합회는 이러한 동아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된다면 동아리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짐들 같은 동아리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
강보배 기자

새 총대의원회에 바란다

예산 결과 공개 확실한 홍보 필요



총대의원회는 중앙자치기구들의 예산을 감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예산 감사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도 문제지만 확실한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감사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용철(사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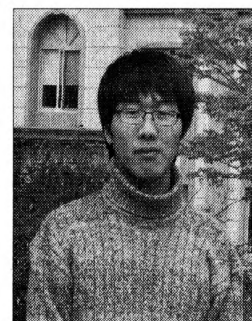
부담스러운 선거유세 관리 필요



총대의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선거를 관리하는 일이다. 매년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번화를 알렸는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선거관리를 해줬으면 한다.

임현정(생활환경복지학부 2)

학생들의 관심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총대의원회의가 중앙위에서 쓰는 예산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지만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밖에 총대의원회 활동도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총대의원회의 활동과 감사 등의 내용을 잘 공개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대의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인복(관광경영 4)

새 동아리연합회에 바란다

인맥위주 말고 개방적인 학생참여 유도



동아리연합회의 활동이 너무 인맥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아는 후배, 선배만 끼리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친분이 없는 학생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번 동아리연합회는 좁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개방적으로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면 한다.

안혜림(독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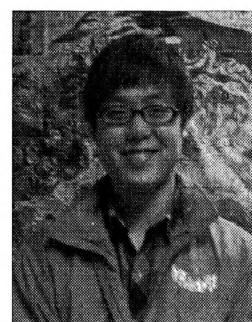
동아리뿐만아니라 일반학생과도 소통을



동아리연합회가 학생회관에 있는 동아리 뿐만 아니라 단과대 동아리와 사립캠퍼스 동아리까지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동아리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생들과 소통해 다양한 문화를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김보미(회계 3)

회장다운 대외력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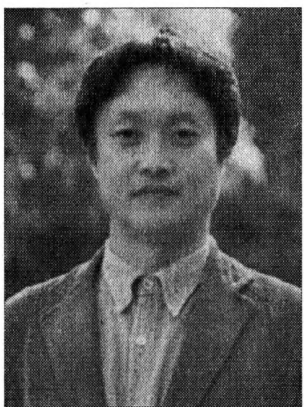


차기 회장은 대외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단순히 동아리연합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등의 다른 자치기구들과 친분관계를 돈독히 했으면 한다.
‘회장’이라는 걸맞은 들어서는 힘들다. 정말 진솔하게 동아리연합회를 이끌고 싶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승용(경영 4) 동아리연합회 회장

시민적 공화주의를 위하여

시장권력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공화주의로 대체해야



최현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나는 대학원생 때 시티즌십(citizenship)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티즌십은 우리말로 하면 시민권과 시민성을 동시에 의미한다. 내가 시티즌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티즌십 개념과 그것을 둘러싼 연구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제도, 시민 윤리, 행동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티즌십은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를 전제한다. 봉건사회에서는 시민적 덕성을 찾기 어려우며, 민주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민주적인 시민적 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시티즌십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모색하다 공화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2년 촛불집회와 2008년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공화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공화주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아직까지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없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1997년 페티(Philip Pettit)의 『공화주의: 자유와 통치의 이론』이라는 기념비적 저서를 출판한 이후 공화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글에서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화주의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2. 공화주의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주의는

독재에 대해 싸워온 수십 년간의 투쟁과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도대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의 곧 democracy는 인민의 지배를 지향한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공화국 또는 공화정 곧 republic 또는 commonwealth를 지향한다. republic은 원래 공적인 일을 의미하는 res publica에서 온 말이다. 공적인 일은 공동체의 정의와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영어권에서는 republic 대신 commonwealth로 번역되기도 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무분별한 사회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여 사회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주적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화국은 그러한 시민적 덕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정치이념이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는 republic 또는 commonwealth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주나라의 령왕이 폭정을 일삼다가 쫓겨난 후 일부 제후와 재상이 왕을 대신하여 공동으로 통치하던 체제인 공화(共和: BC 841 - BC 828)로부터 비롯되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공화국을 단순히 왕국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 공화주의는 정의로운 공동체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이상을 담고 있다.

3. 공화주의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는 자유주의적 자유보다 오래된 이상이었지만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이 됨에 따라 그 차이는 잊혀졌다. 하지만 최근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이 팽배하면서 개인주의와 무책임이 당연한 것이 되고 시민적 덕성이 쇠퇴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무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 자유와 자유주의적 자유의 차이가 부각되었다. 자유주의는 공동체 이전에 모든 개인이 자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른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 개념을 옹호하는데, 소극적 자유가 정당화되면서 공동체와 국가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을 간섭하거나 억압하는 불편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자유를 위해 시민은 공동체와 국가로부터 멀어져야 했으며, 정치는 권력욕에 불과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소수의 정치꾼들에게 맡겨졌다. 결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들라크루아, 인민을 인도하는 '자유'의 여신

(네이버 발췌)

없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 시민의 자유가 공동체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사실 공동체 밖에서 자유는 몽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주의와 달리 공화주의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유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는 공화주의의 최상의 가치이다. 곧 페티는 공화주의를 “비지배 자유”라는 이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비지배 자유”란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며, 또한 시민들을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는 불평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가나 공동체는 시민에게 법을 통해 간섭을 할 수 있지만, 그 간섭은 “비지배 자유”를 보장할 때만 정당화 된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자연권적 자유나 자유주의적 자유처럼 공동체 밖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제도화한 자유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공동체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개인 특히 소수자인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 공동체를 부정하고 소수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도 분명히 다르다. 공화주의가 “비지배 자유”를 옹호함으로써 소수자를 포함한 공동체를 자유의 내용을 규정하는 주제로 보는 것은 플즈가 『정의론』에서 소수자의 처지까지 고려한 공정한 공동체 운영 규칙을 만들기 위해 “무지의 장막” 뒤에서 고

민하는 인간을 가정했던 것과 유사하다.

4. 한국사회와 공화주의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공화주의에 주목하는 것은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비지배 자유”라는 이념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평등과 함께 보수주의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진보이념에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권력이 강대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빈곤한 시민들을 예측과 부자유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체와 국가를 무력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무기가 되고 있다.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력의 자의적 사용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지배 자유”를 여성주의와 결합하려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와 평등, 권리와 책무, 제도와 덕성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공화주의와 그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이클 샌델 역시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자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권의 책

일본인의 이중적 실체 심층해부

“외면적 행동, 사고방식 등 문화이해에 도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미국은 급박한 전시 상황 하에서 일본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저자는 일본을 방문한 경험 없이 주변사람들의 경험 및 다양한 문헌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습관에 관련된 것들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저자는 일본문화의 특성을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상반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한 손에 아름다운 국화를 들고 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손에는 차가운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한다. 베네딕트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일본 민족성의 본질이라고 했다.

일본사회는 ‘알맞은 자리매김’을 중시하는 계층사회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각자 계층별로 알맞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모든 국가는 국제적 계층 조직 속에서 제각기 일정한 위치를 점령해야하므로, 일본은 계층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대동아 공영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일본은 은혜(恩)와 의무(義務)와 의리(義理)가 특수한 채무관계로 엮여있다. 은혜(恩)라는 것은 사람한테 부여되는 부담이며 빛이다. 보물은 윗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의무(義務)와 의리(義理)가 있다. 은혜 중의 최고는 천황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전쟁 중에 천황의 이름으로 지급된 하사품은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였으므로 이를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가미카제 특공대’의 조종사들은 미군함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 천황에 대한 무한한 은혜를 갚음으로써 의무(義務)를 다했다.

보은 중 다른 하나가 의리(義理)인데, 의리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충(忠)과 충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막부시대의 ‘47명의 난인(浪人) 이야기’가 있다. 기라 영주가 고의로 아사노 영주를 속여 쇼군이 있는 중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지음

요한 자리에서 모욕을 주자 모욕당한 아사노 영주는 칼을 뽑아 기라의 이마를 베어 복수를 함으로써 자기 이름에 대한 의리(義理)를 지킨다. 그러나 어전에서 칼을 뽑은 건 충(忠)에 반하는 행동이었으므로 기꺼이 할복을 하여 충과 의리를 완수시킨다. 또한 주인을 잃은 아사노 영주의 난인들은 결국 기라 영주를 살해하여 복수를 함으로써 주군(主君)에 대한 의리(義理)를 지켰다.

일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 게다가 실나라인 일본은 개인주의의 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것이 곧 다테마에(외제적인 태도)와 혼네(속마음)로 평화를 옹호하면서도 전쟁을 좋아하는 그들의 두 얼굴이다.

결론으로 국화처럼 부드럽게 남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을 외국인들의 관점으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책은 제한된 방법과 한정된 자료에 의해 1940년대에 서양인의 시각에서 쓰여 졌음을 간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일본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문화의 다양성 측면으로 접근하여 일본인의 민족적 특징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고선화 일러스트 강사

지역경제 바로알기④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 동네상권 진출 규제 절실

‘SSM 규제법’ 국회처리 무산에 정치권은 공방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려왔던 상생법의 무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최근 논란이 된 두개의 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Super Super Market : 일반 슈퍼마켓이 아닌 대기업이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기업 자본이 과반인 SSM 프랜차이즈업체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인데 이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대형마트가 생기며 지역간 경제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실제 지난 10년 우리나라 산업에서 소매업 취업자의 비중은 18%에서 15%로 감소했고, 최근 5년 동안 재래시장 또한 50개 정도가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변화는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400여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인구는 15만명에서 20만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2만명에 1개 꼴로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다. 물론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재래시장은 죽고 대형마트는 포화상태인 실상.

이렇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대형마트들은 이제 몸집을 줄여 동네 골목으로 파고들었고 그것

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매입할 때 그 지역의 물건을 매입하거나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는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지역 여론 때문에 지역물품을 납품받는 마트들도 있지만 대형마트는 대량으로 물건을 매입해서 이윤을 최대한 남기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매입한다.

그렇게 지역 내부의 산업 연관구조가 깨지게 된다. 지역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한 재고관리로 반쯤되는 물품들이 많고, 심지어는 내부 광고비까지 받는 업체가 있다. 이는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판매자를 잃을 수 없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납품을 한다.

게다가 무조건 싸게만 파는 물건들은 결과적으로 물건의 질을 떨어뜨려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줄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선 당연히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줄여서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질적수준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격이 모든 소비 활동의 중심이 되는 현재 시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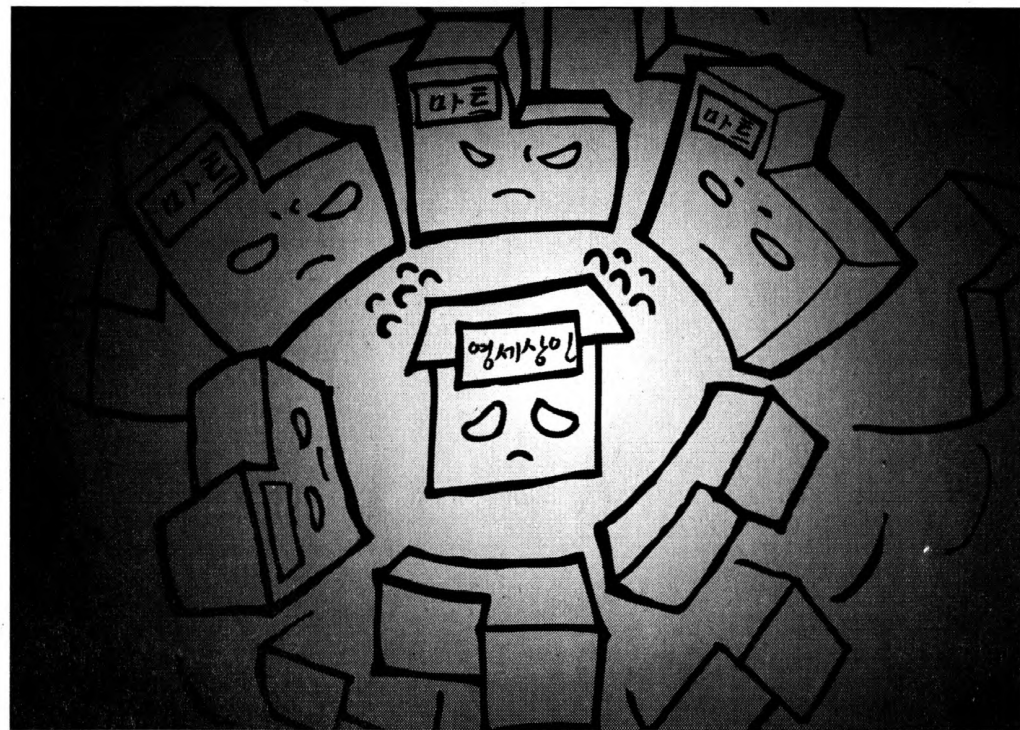
황에서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포화상태인 대형마트의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SSM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현재 전국적으로 들어선 SSM은 9월말 기준으로 859개다. 또 여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올린 매출은 지난해 4조원을 넘어 3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한다. 게다가 대형마트 3사의 작년 매출액은 26조 2천 7백억,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가 넘는다.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상인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며 SSM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유통법과 상생법은 외국의 압박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처리는 무산됐다.

이 상생법에 대해 영국이나 EU 등에서는 고은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계 대형마트의 국내 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의 대형마트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말이다.

WTO규범에 위배된다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도 있으나 WTO의 기본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국내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 확대에 대해서 중소기업 보호하는 것이 WTO를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심에 대형마트가 한곳도 없고, 독일은 대형마트 입점 시 교통 혼잡과 기존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심사한다. 인근의 소규모 상가가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들어설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을 또한 주말에는 문을 열지 못하게 하거나 영업시간까지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에는 약 55만의 인구가 있고, 대형마트 5곳이 있다. 제주의 경우 SSM은 들어서지 않았지만 현재 제주진출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제주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SSM 하나가 골목슈퍼 20~30개의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체주분부가 지난 5월 전국 SSM 주변의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고,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9만3천원에서 85만2천원으로 3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이 내 경기 선순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경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모든 소비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속에서 울상 짓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이호형(언론홍보 4)

■ 무론유설 ■

바다로 도망간 순 임금과 불양부지악, 백옥루를 찾아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인(聖人) 군자를 들라면 당연히 순(舜) 임금을 든다. 그 순 임금이 밤중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 바닷가로 도망을 간 적이 있다. 어쩌다 살인을 한 아버지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 순 임금 아버지의 이름은 '고수'다. 그가 어느 날 살인을 했다. 잡히면 사형을 면할 수 없었고, 순 임금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는 장님이었다. 남몰래 이 소식을 들은 순 임금은 곧바로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바닷가로 도망갔다. 세상이 그 일을 잊을 때까지 숨어 지냈다. 말하자면 공소 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충(忠)을 내세우는 쪽에서는 순 임금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충이 효(孝)에 앞설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장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닥친 일이었으니 말이다. 요즘의 개념과는 그 근본이 다르다.

순 임금이 바닷가로 도망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 임금은 아버지를 들쳐 업고 바닷가로 도망가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자기 아버지가 붙잡히면 죽으니, 무조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왕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은 자기의 불효(不孝)라는 생각뿐이었다. '효의 지극함'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이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순 임금이 바다로 도망을 갔다는 고사를 읽는 순간, 나는 '불양부지악(不揚父之惡)'이란 말을 떠올린다. '부모의 허물이나 나쁜 점을 남에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자기 부모가 못나고 밋터라도 내 부모의 허물과 나쁜 점을 특히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저 부모의 허물을 자기 스스로만 알고 깨우치며,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효도하면 된다. 못나도 내 부모요, 잘나도 내 부모이다. 오죽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천륜(天倫)이라 했는가! 천륜이란 부

모 자식, 형제 사이의 변치 않는 맺맺한 도리이다. 천도(天道)는 심원(深遠)하고 인도(人道)는 천근(淺近)하다(天道遠 人道近). 그래서 천도는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 두질 않는다'는 뜻의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란 말이 『한시외전』에 나온다. 이 말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싶으나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한 인간이 부모를 제대로 알려면, 자식이 혼인(婚姻)을 하여 직접 자기 자식을 낳아 길러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임을 알아야겠다. '나'이 들어 철들자 망령된다'는 말도 있다.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이미 그때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탄식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젊은 대학생들이여! 인간 만행(萬行)의 근본인 효가 무엇이며, '효도(孝道)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 함께 살면서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볼 일이다.

중국 당나라 때 이하(李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하전(李賀傳)'에는 이런 말이 전한다.

"당나라 이하(李賀)가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조랑말을 타고 비단 주머니를 등에 진 아이들을 따라가며 시를 짓는 대로 그 주머니에 넣고 저녁에 돌아와 완성하곤 했다."

옛날 진나라 죽림철현의 한 사람인 유령(劉伶)이 자기 관(帽)과 삼을 종에게 짊어지고 따라오게 하면서 자기가 죽는 그곳에 묻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하가 죽을 무렵, 하루는 낮에 비의(緋衣)를 입은 사람이 붉은 용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무슨 치부책이 들려 있었는데 태고전(太古篆) 같기도 하고 벽력석문(霹靂石文) 같

기도 했다. 그 사람이 이 이하에게 말했다.

"당신을 데려가야겠다."

이하는 그 글을 다 읽지도 못하고 갑자기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렸다.

"육황상제께서 백옥루(白玉樓)를 지어두고 당장 그대를 불러 시를 지으라고 하시는 빨리갑시다.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라 괴로움이 없는 곳이야."

"저는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으니 갈 수가 없습시다."

깊어가는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효에 관한 시 한 수를 읊조려본다.

아이가 천 마디를 하면 그대가 듣기에 싫지 않고 부모가 한 번 입을 열면 한가로워 간섭한다고 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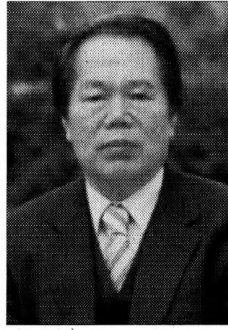
한가로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걸리고 끌리는 게 있어 백발이 되도록 알고 단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다.

여보게, 노인의 말을 성심껏 받들고 첫비린내 나는 입으로 장단을 두드리 마라.

아이의 오줌과 똥을 그대는 싫어하는 빛이 없으되

노인이 침 흘리는 것은 도리어 증오하는구나. 육척의 몸동여리 어느 곳에서 왔고,

부모의 정기(精氣)가 네 몸을 만들었노라. 여보게, 늙어 가는 사람을 공경해 받들여라.



최규일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신입교수 릴레이 인터뷰 - 오창윤(산업디자인학과·세라믹디자인)

“자신의 열정을 디자인 하라”

오창윤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공과대학 2호관에 있는 연구실을 찾았다. 그의 연구실은 책 하나, 의자 하나까지 모두 디자인한 것처럼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책상은 학문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 다양한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의 어려웠을 때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대학교 1,2학년 때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하고 열정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생의 반전점이 찾아왔다.

"배움에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던 건 바로 3학년 세라믹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였죠. 그때부터 세라믹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도 관심 갖게 됐어요."

오 교수는 인생의 반전점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반전점을 만들려면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열정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책을 찾아보고 주변의 변화를 메모하는 것도 배움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그는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허영만 작가는 식객 속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이렇듯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삶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을 디자인 하세요. 학생들이 자신만의 계획을 짜면서 삶을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디자인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계획하라는 뜻도 포함한다. 그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계획하기를 원했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특별한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는 열정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스스로만의 정답을 찾아 나설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에 대한 관심 또한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여기서 살 때 제주를 잘 알지 못했어요. 육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주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제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알게 됐죠."

그는 학생들에게 제주와 디자인을 연결시켜 생

각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그만의 독특한 수업방식이다.

그가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고 느꼈던 것 같다.

"제주의 휴

도 제주만의 것이고, 현무

암도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주의

특수한 것을 살펴 산업디자인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제주만의 고유한 특징을 끌어내기 위해 노

력한다. 제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도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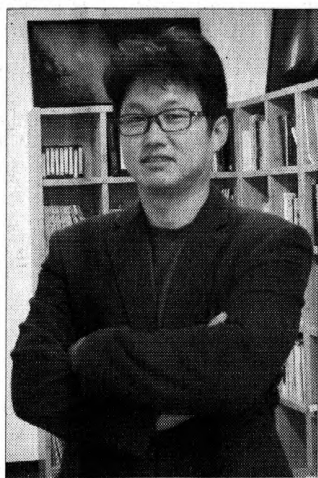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를 위해서 해서 끝이 아닌

그와 제자간의 인연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

은 그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수진 기자



오창윤 전임강사

사설

희망을 쏘는 학생회 선거를 기대한다

어김없이 학생회 선거철이 다가왔다. 캠퍼스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포스터가 붙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저마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소리 높여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으로 후끈 달아오른 캠퍼스가 가을의 제주대학교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번 선거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등 2011년도의 학생자치기구를 이끌어갈 새얼굴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번 선거가 단지 연례행사로만 치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모든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으로 대결하기 바란다. 왜 자신들이 학생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학교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세우기 바란다. 얼굴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알리는 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학생회에서 쓰는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런 예산들은 현재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것 같지 않다.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 학생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얼마나 투입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선거를 치르면서 학생회가 발전하고 대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거포스터의 내용이 무척 실망스럽다. 약력만 잔뜩 들어가 있지 공약은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무에 그리 중요한 정보인가? 학연과 지연에 따라서 투표를 하라는 것인가? 약력은 몇 년도 학번이고 현재 어느 학과에 재학 중인지,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리는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만약에 선거포스터에 공약은 빼고 약력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참에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일이다.

유권자인 일반 학생들도 마땅히 공약과 정책을 보고서 후보자를 택하기 바란다. 어떤 후보가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 대학 발전을 위해 진력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표를 얻기 위한 장밋빛 공약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학생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후보, 갖가지 항을 제공하는 후보, 사회의 기성 정치인이나 정당의 후원을 받는 후보,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는 후보 등은 절대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운동방법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선거운동비용이 법정비용을 넘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선거규정을 어기는 후보자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선거의 시비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공명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큰 불행할 막을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꼭 부탁할 사항은 강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후보자나 운동원들은 교수에게 강의를 좀 늦게 시작해달라거나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수들도 운동원학생들이 때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탁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일반학생들도 강의시간에 들어와서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대로 찍어주어서 안 된다. 대학에서 강의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침범 받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정치권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모두가 걱정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표를 하라는 것인가? 약력은 몇 년도 학번이고 현재 어느 학과에 재학 중인지,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리는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만약에 선거포스터에 공약은 빼고 약력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 독자기고 ■

인터넷서 사생활보호 강조돼야

최근에 중학생 제자와 여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과, 드라마에서는 흔히 로맨스로 받아들여지는 비현실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혀를 내두르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이 터지고 난 후, 소위 DC인사이드의 '코걸'이라고 불리는 코미디 갤러리에서는 여교사의 이름과 사진, 가족사진까지 모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그 여교사는 모든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되며 온갖 욕으로 얼룩진 댓글을 받아야 했다.

코걸에서 이런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매일 터지는 안 좋은 일들의 주범은 매일 코걸 아니, '코걸특검'에서 개인의 사진부터 주소, 학력까지 모든 것을 찾아낸다.

나는 매번 그럴 때마다 네티즌의 단순한 호기심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에 기가 막혔고, 사생활이 과연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다. 생각을 하다보니 과연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게 옳은 일일까?라는 윤리적 측면에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것들 모두를 허용해주는 사회가 문제인걸까?

그들이 사생활을 폭로하기 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찾고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 문제다. 사실 요즘은 미니홈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개인블로그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나의 사생활을 올리고 남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게 증가하면서 이런 일은 흔치 않게 당연시 되었지만 남의 사생활까지 유출하는게 과연 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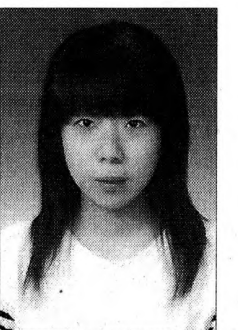
일일까?

사생활은 개인의 엄연한 한 영역이고 이를 허용없이 타인이 맘대로 유출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어쩌다 개인의 잘못이 사생활 유출로 확대되게 된 것일까? 더군다나 그렇다고 개인의 잘못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급속히 퍼지고 더 잘못이 커질 뿐,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동조할 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런 잘못입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그 뿐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회의 개방성의 측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네티즌들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도 안에서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생각 없이 남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퍼트리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사생활 유출을 방조하는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사생활이 유출됐을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분노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정의사회는 멀리 있지 않다.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고 전환을 꾀해야 할 때, 바로 그 때가 정의사회일 것이다.



양수련(양훈 1)

■ 독자기고 ■

욕설 난무... 막말 방송... 막가는 사회

요즘 일상생활에선 욕없는 대화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욕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도 욕을 아무런 생각없이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욕이 난무하는 한국사회는 '한국이 욕으로는 선진국이다' 혹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다양한 욕을 배운다' 등 지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욕설' 그 자체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나 자신의 감정표현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노래가사 소재에도 심심치 않게 욕이 등장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요즘 중 고등학생들과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마저도 욕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고 한다.

욕이 남을 비하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쓰인다는 점과 주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버스 안에서나 길을 걸어가길 때에도 중 고등학생들이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는 것을 들

을 수 있다. 진짜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욕설을 퍼붓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인상을 찌푸릴 수 밖에 없다. 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이 나온다. 친구를 처음 만나 인사를 할 때부터 '강아지' 소리가 나오니 말이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방종이라 여겨질만큼 주변에도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욕은 죄없는 주변 사람의 귀를 찌게 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욕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혀 버렸는지 알수는 없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이며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던 한국이란 나라가 어느 순간 가치관이 변하고 끊임없는 경쟁으로 결국 우리나라를 소위 '욕 선진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욕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욕을 아

무렇지 않게 쉽게 사용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욕이라

는 것이 친한 이들과의

친근감의 표시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남에게는 큰 상

처가 되고 듣는 주변인

들의 귀를 찌는 행

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한다.

대학은 우리가 사회

에 나가기 전,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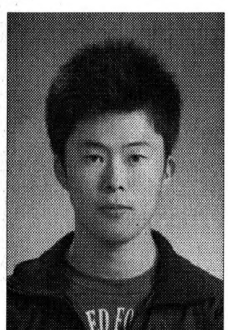
전당에서조차 욕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슬

퍼해야 한다. 사회에서 주역이 될 우리부터 욕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욕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대학 문화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임형규
(메트로닉스공학 1)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news.jejunu.ac.kr

ROTC 학군후보생과의 일일동행

“장교 꿈 위해 후보생 됐죠... 자긍심과 긍지로 대학생활에 최선”

학교를 거닐다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 짧은 머리에 학군단모를 살짝 눌러쓰고 초록색 단복을 입은 이들. 우리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학군단 ROTC가 바로 그들이다. 언제나 바짝 군기가 들어있어 학생이라기보다는 군인처럼 보이는 그들의 실생활은 어떨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ROTC 후보생의 하루에 동행해봤다. <편집자주>

지난달 28일 목요일 저녁, ROTC 3학년 고남협 후보생(체육학부 3)의 집이 시끌벅적하다. 다음날 입을 단복과 구두를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단복은 주름이 지지 않게 각을 살펴 땀뻘이 다져야하고, 구두는 빛이 나도록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닦는다. 이 모든 것을 고 후보생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한다. 그는 준비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직 입사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생활에 대한 입사시험은 매주 금요일 군사학 과업 정렬시간에 4학년 선배들에게 단복 정비 상태와 함께 확인받기 때문에 철저히 외워둬야 한다. 고 후보생은 잠들기 전 입사시험을 다시 한번 되뇌어본다.

다음날 29일 금요일 오전 6시, 고 후보생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7시까지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수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 정성스럽게 다려놓았던 단복을 챙겨 입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유형, 평영 수영을 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은 항상 10시로 정해져 있다. 그는 오늘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지만 매번 등교 시간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기 어려운 게 출퇴근 시간이에요. 특히 시험보기 전 주가 가장 힘들어요. 시험기간에는 출퇴근 규칙이 없어서 상관없지만 전 주까지는 계속 규칙을 유지하거든요. 그럴 땐 밤까지 시험공부를 하다가 잠들어서 늦잠을 잘 때도 많죠.”

출근 후에 군사학과업 정렬 있는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 시간을 갖는다. 고 후보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ROTC 3~4학년 후보생들이 지난 29일 교양동 강의실에서 예비시험을 치르고 있다.

했다. 그러다 축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제주대 체육학부에 입학했다. 하던 운동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대학에서 시간만 보내다보니 방향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다고 한다.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던 중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ROTC를 지원했다.

“ROTC와 일반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과 절제예요. 일반학생일 때는 자유롭게 약속을 잡기도 하고 제가 편한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ROTC가 되고 나서는 내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ROTC 단복을 입고 수강받는 날이면 수업시간에 절대 졸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커피도 마시고, 펜으로 종아리를 툭툭 찌르기도 하죠. 제가 머리도 짧고 단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즐기라고 한다면 학군단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한편 고 후보생은 일반학생들에게 아쉬웠던 점을 토로했다. 학군단 후보생은 평소 걸어갈 때나 이월종대로 발 맞춰 걸어야 하고 선배나 훈육관님과 마주쳤

을 때 큰소리로 경례를 한다. 이것은 ROTC만의 전통이고 규칙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따라하면서 그저 웃음거리로 희화화 시키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물론 별 뜻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남의 감정을 조금은 존중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2시 됐다. 뜻밖에 4학년 선배들의 졸업사진 촬영으로 이날 군사학과업 정렬시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후 1시 군사학 수업 때까지 점심시간을 갖기로 했다. 점심시간에는 학군단 후보생이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고 후보생은 평소 동기들과 같이 학생식당이나 학교주변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다.

수업이 시작된 4134 강의실에 고 후보생 말고도 많은 3학년 후보생들이 있었다. 모두 짧은 머리에 초록색의 단복을 입고 있어서 마치 군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후보생들이 수업시간 전에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은 복잡만 다

를 뿐 그저 우리와 같은 대학생의 모습일 뿐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계가입단 훈련이에요. ROTC에 합격하고 학군단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훈련이었죠. 그때가 2월달이라서 굉장히 추웠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훈련생들을 훈련조교가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게 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찬물을 온몸에 끼얹었어요.”

그렇게 힘든 훈련이 끝나갈 때쯤 한 동기의 어머니께서 써주신 편지를 낭독해 주셨어요. 비록 내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부모님 생각이 나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후 2시가 돼서 4학년 졸업사진 촬영 때문에 늦어졌던 수업이 시작됐다. 이번 수업은 3, 4학년이 함께 받는 수업이었다. 훈육관이 들어오자 여기저기 흠뻑 젖어 있던 후보생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고 자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4학년 대표가 “차렷”하는 구령을 하자 착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차렷 자세를 취했다. 또 훈육관에게 경례하자 모두가 우렁찬 목소리로 같이 경례했다.

이날은 군에 관한 지식을 점검하는 예비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숙독하는 연필소리 밖에 나지 않았다. 긴장의 50분이 지난 후 서로 시험지를 바꿔 채점을 했다. 훈육관이 답을 말해줄 때마다 ‘아!’하는 탄식과 ‘와!’하는 탄성이 줄을 이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장교라는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ROTC의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났다. 마지막으로 고 후보생은 학군단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한 마디 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군단이 엘리트 집단이 되느냐 바보 집단이 되느냐 결정된다는 말을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일반학생들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학군단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생활이 마냥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고생한 만큼 그 대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이정우 기자

인터뷰 / 대한민국 인재상 빙소진씨(수의학 3)씨

“동물치료보다는 병 기초연구에 주력”

빙소진(수의학 3)씨가 ‘201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고등학생·대학생 100명에게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에는 여자축구의 희망 지소연, 여민지 선수도 이 상을 받는다. 남다른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로 인정받은 빙소진씨를 만났다.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빙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쩔지 빙씨는 인터뷰를 꺼려했다. 그간 거의 모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이라는 말로 설득해 어렵사리 그녀를 만났다.

“큰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지만, 다른 수상자분들에 비해 저에게는 과분한 상인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제가 ‘지체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을 타고 일어난 것으로 묘사했어요. 지체장애라는 것도 사실 5급이라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고 가정환경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 말이에요. 부모님은 딸이 지체장애인이 됐다면 속상해하셨어요. 정말로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사실 저는 평범한데...”

중학생 때 수술로 척추에 핀을 박았던 것이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만들었다. 운동 범위가 조금 좁을 뿐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빙씨에게 언론의 ‘감성 자극’은 상처로 돌아왔다. 직접 만나본 빙씨는 그저 수의학 연구에 푹 빠졌다는 여대생이었다.

“정말로 좋아하니 연구에 한 번 더 눈이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학부생이라 공부 많이 필요하겠지만 동물 질병에 대해 더 연구해서 원인을 모르는 질병을 파헤치고 싶어요.”

수의학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소년처럼 눈빛이 설렌다. 몇 개의 학술 실적으로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마음속 뜨거운 열정이 그녀가 왜 대한민국의 인재인지 설명해줬다.

“초등학생 때 기르던 감자가 저 때문에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죠. 동물들을 지켜주고 싶



빙소진(수의학 3)씨

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그때 부터였습니다. 수의학에 입학해보니 동물 치료보다는 기초연구 쪽이 더 재미있어서 지금은 기초연구를 하고 있어요.”

빙씨는 학부생임에도 SCI급 국제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고, 2년간 21편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에 참가했다. 또 학술진흥재단 등 각종 학술단체로부터 연구비와 학자금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녀는 연구를 진행하며 학부생으로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쓸 때에는 영어로 써야 해서 어려웠어요. 논문 한 편을 쓰는 데 교정시간까지 포함해 1년이 걸렸어요. 힘들었지만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쓰는 것이 평범한 사람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평범한 여대생도 연구에 대한 애정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꿈은 계속 수의학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철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크게 나아가서는 원인을 모르는 질병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목표죠.”

한편 인재상 수상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상식에 초청돼 상장과 메달, 장학금을 수여받는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박사) 신입생 모집



■ Brain Korea 21

-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고등 인력양성사업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 ▶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사업 지역우수대학원 선정 학과! 국내 유일 관광부문 BK21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김용이
2009년 2월
박사학위 취득
(대국해저관광 회장)



김태진
2010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고계성
2006년 8월
박사학위 취득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



박인호
(박사과정 재학)
중국 연변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영남
(박사과정 재학)
전 김녕미로공원
대표



자필 초도리
(박사과정 재학)
숙대 로고호텔부
Hospitality MBA

■ 대학원생 혜택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 월 50만원 이상, 박사 월 90만원 이상 지급
- ▶ 글로벌 인턴십, 해외 장. 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전액 지원
-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시 차등성과금 지원

■ 주요활동

- ▶ 국제학술대회 참석
- ▶ 해외학자 초청강연
- ▶ 장단기 해외연수
- ▶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광경영학과 (석·박사)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2010. 11. 23 (화) - 11. 26 (금)
- 접수: <http://www.uwayapply.com> (1588-8988)
- 대학원 문의: <http://gs.jeju.ac.kr/> (754-2045)



BK21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전문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www.bktourism.org (754-2066)